



구지가(龜旨歌) 연구(研究)

A Study on Kujiga(a Korean ballad)

저자
(Authors) 박지홍

출처
(Source) [국어국문학 16](#), 1957.4, 3-17 (15 pages)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6](#), 1957.4, 3-17 (15 pages)

발행처
(Publisher) [국어국문학회](#)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74616>

APA Style 박지홍 (1957). 구지가(龜旨歌) 연구(研究). 국어국문학, 16, 3-1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7 13:5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龜旨歌 研究

박 지 흥

1. 序 言
2. 龜旨歌에 對한 既往의 說
3. 龜旨歌 新解讀
 - (a) 龜旨歌와 海歌詞의 對照研究
 - (b) 龜는 “龜”의 鄉札이다.
 - (c) 何는 “格助詞”이다.
 - (d) 首는 “頭”의 鄉札이다.
 - (e) 全文解讀

※ 龜旨는 “龜頭”의 鄉札이다.
4. 龜旨歌의 장르 —— 龜旨歌는 呪文이다.
5. 結 言

1. 序 言

三國遺事 卷二 魏洛國記 속에 傳해 오는 잘막한 上代 歌謠 한 首는 實로 國文學史上 重要한 位置를 자리잡고 있다. 이 노래는 흔히 龜旨歌(註1)로 불리우는 것으로 魏洛國記에서 이에 關係되는 部分을 밝아 보면 다음과 같다.

『개벽한 후로 이 곳에 아직 나라의 이름이 없고 또한 君臣의 稱號가 없더니 이 때, 我刀子……等의 九千이 있어 이룬이 酋長이 되어 人民을 거느려서 무릇 一百戶 七萬人이었다. 山野에 드물하여 우물을 파 마시고 밭을 갈아 먹더니 後漢 世祖 光武 帝 建武 十八年 壬寅 三月 祿浴日에 그 곳 北쪽 龜旨에서 무엇을 부르는 수상한 소리가 났다. 衆庶(村人) 二三百人이 이 곳에 모이니 사람의 소리는 나는 듯 하되 그 형상은 보이지 않고……』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하였다.

[4]

九千이 이르되

“우리가 있다” 하였다.

또 가로되

“여기가 어딘가”

대답하되

“龜旨다” 하였다.

또 말하되

“上天이 나에게 命하기를 이 곳에 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여 임금이 되라 하였으므로 이 곳에 왔으니 너희들은 崧上에 肅을 파면서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 (註2) 하고 舞蹈하면 大王을 맞이하여 歡喜勇躍할 것이리라” 하였다. (李丙巖氏 譯註 三國遺事에서)

이는 駕洛國 建國神話의 一部로 여기 나타나는 大王은 勿論 金首露이다.

이 龜旨歌는 原始文學의 하나의 典型인 呪文으로 보아지며 이는 믿을 수 있는 東方 唯一의 原始 歌謠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 이 龜旨歌를 새로 解讀함으로써 그 內容을 解明하고는 이에 關한 傳說을 詳考한 後 우리 나라 原始文學의 윤곽을 敘述할가 한다.

2. 龜旨歌에 對한 既往의 說

龜旨歌에 對해서 잘못하나마 所說을 發表한 이에는 趙潤濟氏 梁柱東氏 鄭某, 李某가 있다. 이제 이 人들의 所說을 發表한 年代順으로 重要한 것만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A. 梁柱東氏說 (註 3)

東方古民의 原始宗教가 漸次 샤만의 으로 形成됨에 따라서 原始歌謠의 內容이 또한 單純한 天神, 日神, 其他에 對한 祝禱의 意味外에 顯著히 呪術的 으로 되었을 것은 推測하기 不難하다. 即 歌謠 自體를 神靈과 交通할 수 있는 무슨 超自然的 靈異한 힘으로 觀念하여 呪術的으로 이를 使用하게 될 是亦 “샤만”의 觀念의 形成을 前提로 한 것인데 그 淵源이 上古에 까지 遡及됨은 저 駕洛 九千의 迎神君歌로써 이를 짐작할 수 있다.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이 原始 信仰을 基調로 한 「맞이」의 노래는 上代 歌謠의 實際的 內容을 傳하는 唯一의 實例로 神君을 나타내게 하는 한 呪術的 힘으로 使用됨을 본다.

그런데 이와 같이 歌謠를 呪術視, 神聖視하는 流風은 멀리 後代에까지 依然히 傳承되어 우리는 羅代의 이른바 詞腦歌中에서도 그 實例를 흔히 發見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지 遺事 所載 聖德王代 海龍에게 拉致된 美婦人을 내놓으라고 群衆이 合唱한 海歌詞도 이와 전혀 一徹이다:.....」

B. 鄭某의 說 (註4)

高麗 末期 (西紀1075~1083)에 되었다는 魏洛國記를 보면, 新羅 儒理王 19年(西紀42) 三月에 魏洛의 九干과 衆庶 二三百名이 龜旨峰에서 君長을 맞이하기 爲하여 峰頂을 爬해치고 歡喜勇躍하며

거불아 거불아
머리를 나타내어라
시혹 나타내지 않으면
굽고 구워서 먹으리라

의 뜻을 가진 迎神歌를 불렀다고 한다. 이 노래의 內容은 一種의 呪文으로 命令的이요 威壓的이다. 이 呪文의 歌謠가 君長을 맞이하는 노래였다고 하니 迎神君歌는 原始 宗教生活에 볼 수 있는 原始的 祈禱로서 呪願詞였던 것이다.」

C. 李某說 (註5)

.....迎神君歌가 新羅 聖德王 때 海龍에게 拉致된 水路夫人을 내놓으라고 群衆이 合唱하였다는 海歌詞와 같은 關聯이 있음은 이미 梁柱東氏가 밝혔다. 萬若 여기서 더 大膽한 想像이 容許되면 이 迎神君歌는 金庾信에 나오는 龜免之說 (註6)과도 何等의 聯關이 있을 것 같다.

龜(거북, 자라, 별주부)를 다 가리키는 듯하다)는 세 군데 다 나오고 龍宮은 海歌詞와 龜免之說에만 나오고 龜免之說에는 나오지 않는데 首露가 알로서 하늘에서 줄을 타고 내려 왔다는 이 하늘은 그저 漠然한 하늘이 아니고 龍宮 있는 곳을 가리키 곳인지도 모른다.....

(筆者註)

龜旨歌.....	거북.....	하늘(=龍宮)
龜免之說.....	거북.....	龍宮
별주부傳.....	자라(별주부).....	龍宮

李某는 이렇게 說明하므로써 龜旨歌를 敘事詩의 一部로 보았다.

李某의 說을 整理하면 이상과 같이 된다.

龜乎龜乎 出水路 掠人婦女 罪何極
 汝若悖逆 不出獻 入網捕掠 燔之喫
 이따 하였다 (李丙潑氏 譯註本)
 타고 되어 있다.

이 海歌詞와 龜旨歌는 傳說로 보아서는 그리 符合되지. 實으나 歌詞는 크게 符合된다. 이 海歌詞에서 특히 異常한 것은 龜乎龜乎이다. 龜이 물고 들어갔는데 거북을 부른다는 것은 출이 당지 않는다. 여기의 龜은 사실은 漢字 龜이 아니고 鄉札이다. 龜의 古語는 “미르” “미루” 등으로 訓蒙字會, 韓石峯의 千字文 鷄林類事 등에 나타나는 것으로 곧 龜은 “물”의 鄉札이며, 水路夫人이 물에 빠졌다는 것이 說話化된 것이다. 海歌詞의 龜에 關한 說話를 잠깐 보류하고 두 歌詞를 對照해 보면 다음과 같다.

(龜旨歌)	(海歌詞)
龜何龜何	龜乎龜乎
首其現也	出水路
	(掠人婦女 罪何極)
	(汝若悖逆)
若不現也	不出獻
燔之而喫	燔之喫

이렇게 對照해 봄으로써 우리는 海歌詞가 본디 四句體인 龜旨歌에서 되어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掠人婦女 罪何極과 汝若悖逆, 入網捕掠은 물이 龜으로 擬人化됨에 따라서 附加的으로 생긴 句이요 原歌詞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龜乎龜乎 (龜何龜何)
 出水路也 (首其現也)
 若不出獻 (若不現也)
 燔之喫也 (燔灼而喫) (·은 筆者가 挿入)

곧 龜旨歌와 海歌詞는 본디는 꼭 같은 가사였으며, 龜乎의 乎와 龜何의 何, 出水路의 出과, 首其現也의 現 및 水路와 首는 같은 말로 해석되어야 한다.

B. 龜은 “물”의 鄉札이다.

앞에서도 나는 主張했거니와 龜은 “물, 窟”의 鄉札이다. 只今까지 龜旨歌를 解讀한 이는 모두 鄉某를 위시해서 龜을 거북으로 보았다 (梁柱東氏가 아무런 說明없이 北龜旨를 뒷걸음대로 본 일이 있을 뿐 (註9) 그것은 말이

안된다. 首露王이 등극하는데 거북더러 머리를 내어 놓으라 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海龍에게 납치되어 간 水路夫人을 거북더러 내어 놓으란 말은 더욱 그러하다. 이것은 어떻게 달리 解讀해야 한다. 水路는 물(龍)에 빠진 것이다. 곧 水神에게 잡혀 간 것이다. 곧 蛟(神)에게 잡혀 간 것이다. 이렇게 풀어 보면 비로소 줄이 닿는다.

越淳奎氏의 嶺南移秧歌小考(註10)에 보면 다음과 같은 民謠가 있다.

거미야 거미야 왕거미야
晉州 德山 왕거미야
네 天龍 내 활랑
청송산에 袴바우
미리죽 미리죽 ※ 미리죽 = 龍湯(筆者註)
두덩실두덩실 왕거미야 (漢字는 筆者가 記入)

이 노래는 名節대 놀이에서 불리우는 것인데 기실은 거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主로 地神을 위접할 때 부르는 것이다. 이 때의 “거미”는 龜(神)의 뜻이며, 미리죽(龍湯)은 燻灼而喫의 뜻인 것 같다.

다음으로 龜에 대한 語學的 해석인데 龜는 現代語로서는 거북이나 古語에서는 거북으로 原語는 거뿔이 아니었던가 한다. 龜는 日本語에서는 Kame이니, 日語와 견주어 보면 더욱 明確해진다(註11) 곧 龜는 蛟(神) 곰(熊) 거미(蛛) Kami(神) Kuma(熊) Kumo(蛛) 등과 같이 蛟(幽, 玄)의 語根 “蛟, 幽”의 派生語로 곧 神의 鄉札이다. 우리말의 한 現象으로 接尾語가 첨가되어 猓(狐)이 여시, 여수, 여호, 여기로 派生되어 가똥이(註12) 거뿔도 겁에 집미어 “음”이 붙어 생긴 蛟과 同意의 派生語인 것이다. 그리고 蛟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변천을 겪은 것 같다.

※ Kam(蛟) > Kəmum(거뿔) > Kəpup(거북) 곧 거뿔의 濁音 사어에서 濁音 사이의 口의 脫落을 막기 위해서 같은 唇音인 清音 “ㅂ”으로 變換한 것이며 다시 음의 末音 “ㅁ”은 初聲 “ㅂ”과 調和하여 發音을 쉽게 하기 위해서 “ㅂ”으로 바뀌어져 거북이 된 것이다.

新羅 鄉歌에 禱千手觀音歌에 나오는 二千萬隱 吾羅의 음다가 없다로 變換은 ㅁ > ㅂ을 방증하는 것이며, 慶南 東海岸에서 아직 없다를 읊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 龜는 龜이니 다음에 오는 助詞가 何로 陽母이기 때문이다. 勿論 이 變遷에 對해서는 후일 더 따져 볼 問題이나 이 程度로 약간 解明

은 본 것 같다.

또한 우리 나라 地名에 龜가 쓰인 곳이 많은데 이것도 모두 “검” “검”의 뜻이 아닌가 한다.

龜寧院(平山驛) 龜潭(丹陽, 富寧) 龜潭寺(淸安) 龜石(報恩) 龜城(榮州, 知禮, 丹城) 龜城郡(定州) 龜城驛(定州) 龜州(龜城郡) 龜旨律(金海) 龜山浦(涼原) 龜山城(榮州, 知禮) 龜山寺(開城) 龜山縣(涼原) 龜山(鴻山, 榮州) 龜岩寺(金海) 龜岩峰(金海) 龜岩灘(穩城) 龜山嶺(安東) 龜窟寺(稷山) 龜龍山(宜寧) 龜峰山(釜山) 龜浦(東榮) 龜尾(京釜線驛)

★ (검의 뜻)

“검”에 對해서 체계적으로 이한 이야기에 梁柱東氏와 李丙濤氏가 있다. 이 제 두 분의 說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註13)

梁柱東氏說一검은 “검, 검, 검, 검” 등으로 互轉되며 王의 古訓에 引用되어 있으며 檀君의 熊女誕生說은 “검”, “검”의 類音에서 생긴 傳說이라고 말한 후 “검”이 女神임을 論斷하였고

李丙濤氏는 “검”은 上·大·神·神聖을 意味하는 말로 日語 Kami(神) 아 이누語 Kamui(熊 神)과 같은 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검”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 勿論 “검”은 古語에서는 神의 뜻에 틀림없으나, 이는 모든 神의 通稱으로 본다. 神에는 日神 月神처럼 사랑의 神도 있고 火神, 水神, 風神처럼 저주의 神도 있는데 (註14) 原始 多神敎 時代에는 아직 絶對의 神이 없는 만큼 이 神은 神의 通稱인 것이다. (또 여기의 龜는 雜神이다)

C. 何는 呼格助詞이다.

何는 呼格助詞이다. 何를 助詞로 본 이에는 梁柱東氏가 처음이며 (註15) 이 밖에도 龜旨歌에 言及한 이는 鄭某를 위시해서 모두 何를 助詞 특히 呼格조사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이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何를 呼格助詞로 보는데는 2가지의 증거가 있다.

첫째 龜何龜何의 何는 아무리 새겨도 漢文으로 새겨지지 않는다. 곧 何는 漢文에서는 何가 呼助詞로 새겨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不得已 이것을 助詞로 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앞서서도 言及했거니와 龜何龜何를 龜旨歌의 一轍인 海歌詞와 對照해 보면 海歌詞의 龜乎龜乎에 對照되는 것으로 何가 乎와 같은 발음을 알 수 있게 되며, 乎가 呼格助詞이니 何가 自然히 呼格助詞임을 알게 되는 것

이다.

그러면 何는 어떠한 呼格助詞일까, 疑問이 되는데 古語에 何(하)가 呼格助詞로 쓰인 文章이 흔히 보인다.

月下 伊底 西方念丁 去賜里遺(願往生歌)
 佛道 向隨 心下(普賢十願歌)
 들하 노귀관 도독사(井邑詞)
 윤하 윤하 아련 비을하(滿春殿)

이상으로 볼 때 나는 何가 下 하와 같은 助詞로 古語에 나타나는 呼格助詞로 斷言함이 조금도 無理가 없다고 본다. 또 하를 呼格助詞로 보지 않고 “아”를 卑稱의 呼格助詞로 보고 “하”를 尊稱의 呼格助詞로 보는 이가 있는데 나의 생각으로서는

“하”가 李朝初期에서는 尊稱으로 쓰였는지 모르나 적어도 高麗 以前에는 呼格助詞인 것 같다. 곧 龍飛御天歌의 “님금하 아랴쇼서 洛水에 山行 가 이서 하나빛 이드니히가 (125章)에서의 하와 같이 尊稱으로 보아지는 것도 있지만 特春殿에서의 “을하 윤하 아련 비을하”와 같이 아무리 보아도 尊稱으로 보아지지 않는 것도 있다.

하는 본디는 결코 尊稱이 아니요 呼格助詞이다. 그러므로 능히 雜神인 魍(쑤)의 呼格이 될 수 있다.

또한 呼格助詞가 쓰인 名詞를 추려 보면 (註16) 이것은 모두 原始生活에 關係되는 單語뿐이며, 이는 日本語 助詞 Wata kusi ka(내가)의 ka, Kimiha(너는)의 ha 우리 조사 그가 품기 띠게 등에서 보듯 (註17) 原始時代의 모든 品詞에 두루 붙은 格助詞로 생각되며, 原始 單語인 쑤도 呼格助詞를 取한 것 같다.

D. 首는 “머리”의 鄉札이다.

앞에서 解明한 바와 같이 首其現也는 出水路와 곧 現首는 出水路와 같은 말이므로 여기 首는 마땅히 水路와 같은 뜻으로 해명되어야 한다. 곧 首其現也를 文法에 순종해서 正常的으로 쓰면 現其首也이고 修飾詞와 終止詞를 빼어버리면 現首이니 首와 水路가 對峙된다.

鄭某등 既往의 모든 풀이와 같이 現首를 “어리를 나타내어라”의 뜻으로, 漢文으로 해석해서는 줄이 닿지 않는다.

으로 어디까지 “물”이 龍으로 傳説化됨에 생긴 부가적인 노래이다.

어떻든 首其現也의 現은 出과 같은 뜻으로 出首가 머리를 나타낸다는 漢文으로 뒷날 해석되자 어느덧 現首로 글자가 바뀌어진 것으로 首其現也는 出首 곧 龜旨峰을 내어놓으라는 뜻으로 首는 冥(嶺)의 鄉札이다.

e. 全文解釋

나는 앞에서 龜旨歌와 海歌詞의 對照를 完了했고 龜, 首를 解明 했으므로 이제 全文을 한 번 풀이해 볼까 한다.

앞에서 이미 言及했거니와 慶南 梁山에서는 주로 秋夕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지신을 밟는다. 쟁파리를 치고 춤을 추며 뜰, 마루, 방 곳곳으로 다니며 雜鬼를 쫓는다. 이때 “어루 어루 지신야”도 부르고 “거미야 거미야 왕거미야”도 부른다. 지금 이 “거미 노래”를 龜旨歌와 한번 대조해 보면— 그 場面에만 必要한 것은 부류하고—

龜何龜何	거미야 거미야 (왕거미야) (晉州나 德山 왕거미야) (네 天龍 내 활랑) (靑龍산 청바우)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	미리국미리국 (두덩실 두덩실 왕거미야)

“거미 노래”는 雜鬼를 쫓는 呪文이니 首其現也 若不現也는 이미 그 行勤에 들어 있는 것으로 만약에 天龍인 네가 떠나지 않으면 활랑인 내가 활로써 너를 쏘아 죽여 국을 끓여 먹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이 두 노래는 또한 부합된다.

노래를 우리말로 새기면
검하 검하 山神아
冥窟를 龜旨峰을 내어 놓고 떠나라
만일에 내어놓고 떠나지 않으면
너를 꾸워서 먹어버리겠다.
의 뜻이 된다.

※ 龜旨는 곧 冥窟의 鄉札로 信仰의 中心地다.

最後로 나는 이 迎神君歌가 불리었다는 곳 龜旨峰에 대해서 解明해 보고자 하니 이는 龜旨歌를 理解하는데 결코 不必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龜旨峰의 龜가 “곰”의 鄉札임은 우리는 龜旨歌와의 關係를 생각할 때 쉽게 짐작되며 峰은 龜旨가 後日 鄉札로 읽히지 아니하고 漢字語로 읽히게 되자 山의 이름이란 것을 더 뚜렷이 나타내기 위해서 붙인 接尾語에 지나지 못한다. 要는 龜旨 두 자의 解明이다.

龜旨에 대해서는 일찌기 梁柱東氏가 北龜旨를 “뿃검뿃뿃”의 鄉札로 解讀한 일이 있으며 다시, “뿃”에 대해서는 뿃뿃 곧 뿃의 一名形으로 보고 日本書紀 山(mure)와 같은 것이라고 解明한 일이 있다. (註20)

또한 李基文氏는 우리 古語 및 方言과 滿洲語의 mulu 蒙古語의 mǔlu 등과 比較하여 “뿃”가 뿃를 뜻하는 말임을 論斷하였다. (註21)

要言컨대 結論하면 龜는 우리말의 古語로 보아지는 日語 mori가 mori> moi> mǔ로 변천해 온 뿃의 뜻으로 龜旨는 神山의 뜻으로 곰뿃뿃이다.

우리 나라의 到處에 나타나는 龜山 龜峰 등의 山名은 모두 神山의 뜻을 취한 것 같다. 아마도 이는 아직 人智가 發達되지 못한 氏族社會의 祭政一致時代 山頂에 神域을 만들고 때를 따라 하늘 및 諸神들에 祭지내던 곳으로 神詞가 있던 信仰의 中心地로 解釋된다.

또 景德王 때 改名되거 전의 金海의 舊名은 鄉札로서 뿃으로 불리웠나 지금 알 수 없으나 나는 그 전의 舊名이 龜旨 또는 이와 비슷한 말로 어쨌든 곰뿃뿃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왜냐면 金海는 鄉札로 금바라이니 이는 곰뿃뿃 곰바라의 音韻變遷을 겪은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金首露의 即位式이 龜旨峰에서 불리웠으며 龜旨峰이 首露王의 即位式 場所로 가려진 것은 결코 偶然한 符合이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 行해 저야 할 必然의 事實이 아닐까 생각된다.

(4) 龜旨歌의 장르

— 龜旨歌는 呪文이다

龜旨歌에 對해서 李某는 이를 叙事詩로 보았다. 그러나 이는 아무래도 출이 닿지 않는다. 李某가 龜旨歌를 叙事詩로 본 것은 이 龜旨歌를 龜兔之說과 結付시키므로서이다. 그러나 龜旨歌는 도저히 龜兔之說과 結付되지 않는다.

또한 文學의 發達로 보아 叙事詩는 常例 原始社會가 古代國家로 옮겨감으

로서 나타나는 文學의 장르이니, (註22) 아직 三國이란 專制王의 國家가 생기기 전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龜旨歌는 결코 叙事詩로 볼 수 없는 것이다.

鄭某는 龜旨歌를 呪文으로 威壓的이요, 命令的이라 하였고 原始宗教生活에서 볼 수 있는 祈禱로서 呪願詞로 보았다.

이는 勿論 呪文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이는 威壓的이요 命令的이매 틀림없다. “거미노래”가 그렇고 “여루여루 지신아”가 그렇고 “엇씨 귀신아”가 그렇듯 모두 威壓的이요 命令的이다.

그런데 氏는 이제서 이를 呪願詞로 보았는지 疑問이다. 아마도 氏는 首其現也(머리를 내어 놓아라)에서 “내어 놓아라”를 祈願으로 본 것 같다—勿論 結果的으로 무슨 祈願을 成就하러 함에는 呪願詞나 呪文이 같겠지만—龜旨歌는 또렷한 하나의 呪文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相對에 對해 祈願成就를 祈願하는 性質의 것이 아닌 것 같다.

梁柱東氏는 龜旨歌를 原始宗教가 漸次 사만의으로 形成됨에 따라 歌謠 내용이 단순한 天神, 日神, 其他에 對한 祝禱의인 意味外에 현저히 되었음은 推測하기 어렵지 않다고 말한 후 龜旨歌를 사만의 觀念의 形成을 前提로 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氏가 龜旨歌를 祝禱의인 神에 대한 讚歌에서 漸次 發展하여 呪術的으로 되어 갔다고 말함에 對해서 나는 실로 氏의 깊은 조예와 博識에 그 意見을 全的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그러나 氏가 龜旨歌를 “사만의” 觀念의 形成을 前提로 한 것이라는 데는 나는 敢히 贊同을 달리 하고자 한다. 氏가 龜旨歌를 사만의 觀念의 形成으로 본 것은 龜를 거북으로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만일 지금까지의 龜에 대한 나의 解明이 多幸히 바르게 되었는지 그에 가까운 것이라면 이는 “사마니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아진다. 나는 이것이 單純한 呪文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龜旨歌는 다른 原始社會와 같이 原始朝鮮에 있었던 舞蹈歌 곧 Ballad Dance 中 하나의 典型的 呪文으로 이는 農事일을 舞曲으로 한 실로 農業生活을 하던 그들로서는 典型的인 것이라 하겠다.

〔窺洛國記〕에 다음과 같은 장면이 있고 『……흙을 파면서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이라 하고, 舞蹈하며 大王을 맞이하여 歡喜勇躍할 것이리라』하였다. 九千들이 그 말과 같이 모두 기어서 歌舞하다가 (圈點은 筆者가 친)

또 「水路夫人」海歌詞稿에 다음과 같은 場面이 있다.

한 老人이 있어 씩하되

「옛날 말에 여러 입은 쇠도 녹인다 하니 이제 海中의 물건인들 어찌 여러 입을 두려 하지 아니하라 境內의 백성을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고 막대로 언덕을 치면 夫人을 찾을 수 있으리라」 하였다 (圈點은 筆者가 친)

이 두 場面을 詳考해 보면 이것이 一種의 舞蹈歌임을 우리는 能히 짐작할 수 있으며 Hirn (1870-)은 文學의 起源에서 「原始文學은 藝術的인 目的以外에 아무것도 안 가졌다는 戲曲으로 생각하는 野蠻人의 舞蹈, 예를 들면 北아메리카 인디안이라든가 黑奴들의 舞蹈도 實은 오직 藝術的인 所産만이 아니고 日常 狩獵으로서 새 짐승을 사격하는 연습을 하고 있으며 그 舞蹈의 動作은 바로 새짐승의 동작이다」(註23) 고 하였으니 이 勞動歌(wark song)가 舞蹈歌이요, 이것이 Ballan Dance이며 龜旨歌에서 곱을 판다든가, 海歌詞에서 막대로 언덕을 치는 것은 모두 가래질 타작질을 시농한 農夫의 動作을 노래한 것일 것이며 이 노래가 典型的이요 代表的임은 이것이 길이 700년 후에까지 四句體歌에서 八句體인 海歌詞로까지 변천해 왔으므로 (註24)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 原始文學에서는 歌詞가 音律의 固着되지 않았으니 (註25) 이는 마땅히 呪歌아니 呪文의 이름으로 불리워져야 할 것이다.

(5) 結 言

—原始文學의 內容

나는 이제 最後로 이 龜旨歌의 研究에서 도움을 얻어 序論에서 말한 바와 같이 原始朝鮮의 文學의 윤곽을 훑어 봄으로써 結論을 대신할까 한다.

原始朝鮮에도 다른 어떠한 原始社會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둠을 가시어 光明을 갖고 오는 日神, 무서운 밤을 지키 주는 月神等에 대해서 一年中 大會를 열어 술을 마시며 (註26) 運動까지 하며 (註27) 一脫離的인 讚歌를 불러 이를 기렸고 (註28) 水害를 준다든가 배를 파선시킨다든가 하는 恐怖의 水神 불을 질러 사람을 태우고 지전을 일으키고 하는 火神등에 對해서는 呪文을 불러 가졌으며 狩獵, 農粟, 漁業등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에 勞動歌인 舞蹈歌를 불렀고.

英雄的인 祖上의 神秘스러운 이야기들 서로 주고 받는 것은 그들의 유일의 즐거움이었던 것 같다 (註29)

그리하여 原始時代엔 讚歌, 呪文 勞動歌 및 祖上의 說話가 口碑文學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장차 이룩될 古代國家가 叙事詩를 가지고 登場한 準備時期의 文學으로 적어도 專制王國인 三國이 일어 실 때까지 韓半島 到處에서 자리잡고서 피어나고 있었던 것이며, 龜旨歌는 그 時代의 文學이 남겨 준 한 조각의 片鱗인 것이다.

[註]

[註 1] 龜旨歌는 三國遺事에 나타나지 않고 현금의 國文學者들이 命名한 것이다.

흔히 迎神歌 迎神君歌 龜何歌로도 불리운다. 龜旨歌는 “기지가 보다 구지가”가 옳을 것 같다. 金海 사람은 龜旨를 구지라 한다.

[註 2] 龜旨歌의 部分만은 譯註 三國遺事에서 筆者가 本文으로 還元시켰다. 燔灼而喫也에서 也를 떼는 也은 歌詞 全文에 걸린 終止詞로 보았기 때문이다.

[註 3] 古歌研究 P.12

[註 4] 우리 어문학회 國文學史 P.5

[註 5] 朝鮮文學社刊 朝鮮文學史

[註 6] 龜聖之說은 三國史記에 나오는 이야기로 거북이 龍王의 命을 받아 도끼 간을 구하러 갔다 온 이야기. (朝鮮史學會本 三國史記 p.427)

[註 7] 民敎社 發刊 拙著 수집국어.

[註 8] 古歌研究 p.12. 우리 어문학회 國文學叢論 P.142. 우리 어문학회 國文學史 P.5

[註 9] 古歌研究 P.69

[註10] 群蜂誌 No.5 P.32

[註11] 日本語와 韓國語 대체를 알라이語에 속한다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 두 말은 흔히 韓日語단 한만이 아닌가 보고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말은 上古時代 많이 日本으로 들어 간 것은 사실이다.

[註12] 河野六郎 朝鮮方言學試攷 “여호”考

[註13] 古歌研究 P.8 國史大觀 P.11.

[註14] 古歌研究 P.4. 魏志 東夷傳(古歌研究 P.2)

○只今도 村에 가면, 風神, 水神, 火神은 크게 저우하고 경계하며, 말때기도 한다. (金東里考 短篇集 巫女圖中 巫女圖)

[註15] 古歌研究 P.335

[註16] 許雄님 註解 龍飛御天歌 P.27

- [註17] 朝鮮方言學試攷 P.114
- [註18] “막르”는 嶺의 뜻으로 옛날은 山野에 많이 드옴 하였다 (三國遺事 崔南善編 P.108, 三國遺事 李丙熙譯註 原文 81)
- [註19] 金東里 短篇集 巫女圖 P.49
- [註20] 古歌研究 P.69 P.70
- [註21] 최현배선생 활갑 기념 “논문집” p.203
- [註22] 小西基一著 日本文學史 p.11, 12.
- [註23] 本間久雄著 改稿 文學概論 P.142
- [註24] 우리 어문학의 國文學概論 P.142
- [註25] 小西基一著 日本文學史 p.12
- [註26] 魏志東夷傳 (古歌研究 P.12)

9

[註27] 부앗네 부앗네 東매 X거 보앗네.
달앗네 달앗네 西매 X매 달앗네 (釜山)

單 하나 밖에 찾지 못한 索職 노텐데, 全民衆이 參與한 原始宗教의 遊戲문 如寶티 풍기고 있다 (高某 朝鮮民謠研究 P.254) . 은 筆者의 교경 高某는 쪽이다 했으나 東萊잡싸움에서는 “배”라 함. 이 노래는 대체로 5살 가량의 아이들이 東매 西매 부닥벌로 나누어져 부르는 응원가이다. 같은 반드시 암술 숫술로 만드니 원시 生殖器 숭배의 자취 같다.

[註28] 지금도 村에 가면 하느님 산신(産神)할머니를 믿는 이의 장가를 들을 수 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할머니께 비나이다. ××살 먹은 ××생 수명부귀 점지 하니 감사감사하나다. 길이길이 돌보시니 감사감사하음이다..... <沈淸傳>

[註29] 小西基一著 日本文學史 P.10.

國文學全史

李 秉 岐 · 白 鐵 共著

本書는 國文學 全般에 亶한 歷史的 發達過程과 世界文學과의 聯
關性을 把握케 하는 貫重한 著作으로, 古典文學과 現代文學에 關한 稀
貴한 文獻과 材料를 豊富히 提示하여 그 珍貴함과 明確한 論述은
可히 驚嘆할만 하다.

近日發賣 價 2200 圓

新 丘 文 化 社